



SF 거장·인류애·지적 호기심 마션-인터스텔라 평행이론

개봉 6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한 '마션'은 작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인터스텔라'와 여러 모로 닮은꼴이다.

사진제공 | 이십세기폭스코리아

개봉 6일 만에 200만 관객 돌파 닮은꼴 과학지식 기반 현실가능한 얘기 공감대 SF선구자 스콧감독, 인류애로 감성 자극

영화 '마션'에서 '인터스텔라'의 흥행이 보인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마션'이 8일 개봉해 첫 주말 동안 일일 평균 50만 명씩을 모으더니, 상영 엿새 만인 13일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인터스텔라'가 SF영화로는 처음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데 이어 우주를 배경으로 한 또 다른 영화가 비슷한 흥행 돌풍을 만들고 있다.

'마션'은 여러 면에서 '인터스텔라'와 닮았다. 각종 우주과학 지식이 집약된 SF장르라는 사실 뿐 아니라 '거장'으로 불리는 연출가의 탁월한 실력, 그들의 손에서 완성된 '인류애'의 감동이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우주과학 지식, '지적 호기심' 자극

'마션'이 관객 호기심을 자극하는 절대적인 원동력은 미지의 세계를 배경으로 삼았지만 '가능한 상황'이라는 현실적인 공감대에 있다. 철저하게 과학지식에 기반을 둔 이야기 역시 관객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영화는 화성탐사 도중 모래폭풍을 만나 홀로 남은 과학자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의 생존기다. 화성의 환경을 조합하고, 식량으로 감자까지 키워 살아남는 그의 모습은 90%에 가깝게 실존 과학지식으로 구현한 내용이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우주선이 스스로 움직이는 '슬랩샷 장면' 역시 실제 우주탐사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배급사 이십세기폭스코리아는 13일 "기존 SF영화와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을 줬다면 '마션'은 미국 나사(NASA)가 태양계 탐사에 쓰는 방식을 활용해 현실감을 높였다"고 밝혔다.

'인터스텔라'의 선택도 비슷했다. 아이슈

타인의 후계자로 불리는 물리학자 킵 손이 영화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참여해 '가상'이 아닌 '현실'을 스크린에 펼쳤다. '인터스텔라'가 교육용으로 각광받으며 가족 관객을 끌어들이는 배경이다.

●거장의 실력, '팬덤'의 지지

'마션'의 리들리 스콧 감독은 SF장르를 개척한 선구자다. 1979년 '에이리언'과 이듬해 '블레이드 러너'를 통해 영화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마션'은 40여 년간 우주에 관심을 기울여온 감독의 새로운 도전이다.

촬영은 까다롭게 이뤄졌다. 화성 사진과 영상을 빼집없이 섭렵한 감독은 실제 화성과 가장 흡사한 지형을 갖춘 요르단 와디 텅 사막을 찾았다. 컴퓨터그래픽도 최대한 배제했다. "사실적인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인터스텔라'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더불어 국내에서 팬덤

을 가진 거장으로 통한다. 이들이 2~3년마다 내놓는 영화가 국내에서 빠짐없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삶을 향한 의지, '인류애' 풀어내

'마션'의 가장 큰 미덕은 '희망'의 메시지다. 화성에 홀로 남은 주인공은 좌절하지 않고 삶을 스스로 개척한다. 그를 구하려고 나선 동료들은 뜨겁게 합심한다. 가장 냉철한 장르로 통하는 SF영화의 역설적이게도 끈끈한 인간애와 인류애를 전면에 내세워, 감동을 배로 늘린 셈이다. 등장인물 누구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서 용기를 얻는다는 관람평도 많다.

몽클한 부성애를 그려냈던 '인터스텔라'의 선택도 같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우주는 차가운 공간이지만 그 안에 살아 존재하는 인간의 따뜻한 감성을 그려내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CF 여신' 신민아 역대급 폭탄녀로 변신

KBS 2TV 월화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서 노처녀 연기



이젠 신민아(사진)가 나선다.

3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오는 신민아가 거침없이 망가진다. 평소 지적이고 단아한 이미지를 벗어버리는 '과감한' 변신이다. 최근 황정음이 '역대급 폭탄녀' 캐릭터로 사랑받으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신민아의 변신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민아가 연기변신을 펼쳐보일 무대는 11월16일부터 방송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다. 극과 극의 전혀 다른 두 남녀가 만나 다이어트에 도전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로맨틱 코미디드라마에서 신민아는 변호사 강주은을 연기한다. 가족부양을 위해 억척같이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지만, 그로 인해 젊은 시절 예뻐던 얼굴과 몸매가 모두 엉망이 되는 노처녀 캐릭터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미모는 포기하되 꿈은 포기하지 않는 '칸디형' 캐릭터가 전 통적인 '흥행불변의 코드'라고 할 수 있는 '로코' 여주인공의 전형성을 그대로 띄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방송사 측도 신민아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KBS 드라마가 올해 초부터 내내 동시간대 경쟁에서 밀리고 있어, 신민아가 급심한 부진을 끊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민아가 2010년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와 2012년 '아랑 사포전' 등 유독 '로코'에서 강세를 보였고, 과감한 연기 변신에 CF 속 '여신' 이미지까지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망가질 예정이라 방송가에서는 호기심 섞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빅 마우스

●"‘객주’는 대본으로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드라마다."(연기자 장혁)
13일 드라마 '장사의 신-객주' 기자간담회에서. "미리 대본을 받고 연기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좋다"는 말로 '족대본' 현실을 꼬집으며.

●"액션 연기를 배워서 정말 좋았는데, 나도 놀랐다."(연기자 임수향)
13일 SBS '주먹쥐고 소림사' 제작발표회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출연자들에게 '허당'으로 꼽히자.

●"열애설이 불거졌을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결별설이 나온 후에 무슨 해명?"(누리꾼 rhdq****)
지드래곤과 솔한 열애설에 휘말렸던 미즈라와 키코가 최근 "지드래곤과 친구사이"라고 해명했다는 기사의 댓글에서.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변호인' 작가, 변호사 이야기로 안방 공략

윤현호 작가 SBS 수목드라마로 컴백
유승호 제대 후 첫 주연드라마로 화제

연기자 유승호와 영화 '변호인' 각본을 맡은 윤현호 작가가 손잡고 안방극장 공략에 나선다.

두 사람은 12월초 방송예정인 SBS 새 수목드라마 '리멤버'로 호흡을 맞춘다. 유승호가 군 제대 후 선택한 첫 드라마이고, 특히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의 작가가 드라마 대본을 썼다는 점에서 방송 안팎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시선을 끄는 것은 윤 작가가 영화에 이어

드라마에서 또 한번 변호사 이야기를 선보인다는 점이다.

드라마는 과잉기억증후군으로 모든 것을 기억하는 한 남자(유승호)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변호사가 됐지만, 어느 날 자신도 알츠하이머에 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인생의 변화를 그린다. 윤 작가는 영화 못지않게 생생하고 긴장감 넘치게 풀어낼 예정이다.

윤 작가는 영화 각본에 앞서 드라마 시놉

시스를 먼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가 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승호가 맡은 서우빈役に 영화계와 안방극장에서 '대세'로 꼽히는 20대 초반의 남자 연기자들이 대거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유승호가 출연을 확정하면서 윤 작가가 그려낸 인물과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작가의 힘이 안방극장에서 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안녕하세요, 탤런트 김 형일 입니다.
1. 남성의 자존감이 살아나고
2. 부부가 행복해지고
3. 삶의 질을 높여주는 '뉴맨'
제가 직접 체험하고 확인했습니다.
'뉴맨'한 남자, 강한남자입니다.

특허청 발명특허!

강한남자 뉴맨!!

〈발명 특허 출원 요지〉
본 발명은 성기능 강화용 링에 관한 것으로서, 남성의 성기에 끼워서 성기로 많은 양의 혈액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크고 강하게 발기가 이루어 지도록 함은 물론, 한번 발기된 상태에서 혈액이 성기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켜주게 되어 보다 장기간 발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남성의 성기능 강화용 링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위와같은 요지로 뉴맨은 2007년08월31일, 발명특허 제10-0756243호를 받았습니다.

구매보다 더 간단한 반품!
15일간 사용해보고 반품을 원하시면 '반품'이라는 메모와 '뉴맨'을 보내주시면 도착 다음날 100%반품,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택배비 고객부담)
구매보다 더 간단한 반품! '뉴맨'의 자신감입니다.

출시10년! 20개국 수출! 누적고객 120만! '뉴맨'!

DAUM NAVER 에서 [뉴맨] 을 검색하세요 ※ 뉴맨홈페이지에 2,000건 이상의 사용후기가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의료가기가 아닙니다.
· 중국지사 T. 0433-286-5031 · 일본동경지사 T. 03-6233-8894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15일 사용후 효과 없을시 100% 반품 · 환불 **T.1588-3346, 010-8020-3346**

서울시 서초구 바우로9길 20 (우면동) (우)케이앤제이아파트 초동신민대 허가 제0701호